

ISSN 1229 - 6198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VOL. 7. NO.1 2003

大韓醫療氣功學會

한의학계라는 대문에 ‘한의학육성법’이라는 명패를 달았습니다.

최근 한의학계라는 대문에 ‘한의학육성법’이라는 명패를 달았습니다. 이제 명패에 걸 맞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전술 등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한의학육성법의 기본이념은 한의약을 우리 민족자산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한의약을 인류질병 치료를 위한 과학기술로 육성하고 한의약이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협력 및 조화를 이뤄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엔 우리 1만 한의사 회원들이 더욱더 정진하여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인 연구결과가 모여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제7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높게 치하하며 뜻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한의학회는 물론 우리 한의학계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공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의료기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도 깊어 매진해 나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런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공학회의 이번 학회지 발간을 모토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 7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 재 규

한의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기대하며

氣는 韓醫學의 根幹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最古 醫書인 黃帝內經에도 나와 있듯이 韓醫學은 氣醫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氣治療가 제도권 안에서 행해지지 않은지 백여 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근래의 韓醫學이 담당하고 있는 治療 영역은 선조들에 비해서 많이 縮小되어 있음이 사실입니다. 숫자상으로 전체 환자의 5%를 채 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전체 醫療費의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을 一見할 수 있는데, 患者들이 韓方診療를 실제적인 疾病의 治療보다는 疾病豫防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韓方診療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病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서 몇 가지 대표적인 疾病 외에는 아예 韓醫學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氣醫學이 韓醫學의 범주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切實한 이유는 첫째, 왜곡되어가고 있는 傳統韓醫學의 의료 체계를 바로잡아갈 뿐 아니라, 둘째, 사라져 가는 韓醫學의 많은 治療영역을 되살리고 셋째, 현재의 局限되어 있는 韓醫學의 治療영역을 더 넓혀주고 넷째, 알러지성 질환이나 최근 발생한 사스 등 많은 난치성 질환들까지도 韓醫學이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몇가지 안되는 對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氣醫學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氣功學을 좀 더 체계적으로 研究하고 活性化 시켜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의 氣功醫學會의 役割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현실이 氣功治療가 醫療體系 안에서 韓方 醫療영역으로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學術的인 客觀性和 效用性的 부족이 문제되고 있는 바 좀더 學術的으로 客觀的이면서 現代的인 시각에서의 檢證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氣功治療의 뛰어난 효용성에 대한 臨床的인 검증 또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學會誌 7권의 發刊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더욱 더 醫療氣功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氣功學이 韓醫師의 전문영역임을 확고히 하고 韓醫學의 治療영역을 확대하는데 先導적인 역할을 발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學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 7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동석

의료기공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올해도 우리 대한의료기공학회에서 일곱 번째 학회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임상으로 있으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 논문을 투고하신 분들과 학회지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의학은 기의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를 운용하는 치료의학입니다. 기공요법은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써온 우리 치료한의학의 뛰어난 치료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은 현대 과학 장비를 이용해 기공요법을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의사들이 쉴 틈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의학계의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칼.G.용이 “태을금화종지-서양인을 위한 심리학적 해설”에서 말한 부분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양은 보다 넓고 깊고 높은 이해 곧 생명을 통한 앎을 가르쳐준다. 우리 서양인은 이러한 이해방식에 대해서 막연히 알 뿐이며..동양적인 지혜를...신앙과 미신이 교차하는 애매한 영역으로 몰아넣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면 우리는 동양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용의 견해는 현 한의학계 넓게는 서양문명에 깊이 경도된 현대사회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구적인 과학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한 서양의학이 자칫 생명체를 기계 다루듯

한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의학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하나인 기공요법이 하나의 대안일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서구적인 교육을 받아온 현대인들이 점차 동양적인 것을 찾고 한의학적 치료법에 관심을 두고 기공요법에 호기심을 들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한의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기공요법에 대한 적극적인 임상연구와 문헌적 고찰 등의 학문적 연구로 그 효용성을 규명하고 실용화를 염두에 둔 객관적 학문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매년 우리 대한의료기공학회에서는 산재되어있는 기공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임상상의 유효성을 통계화 하는 작업의 성과로 대한의료 기공학회지를 산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학회의 이러한 노력을 계속 될 것이며 머지 않아 기공요법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평가가 우리 한의학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가운데도 학문연구에 열중하여 학회지에 연구 성과를 보내준 분들과 학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바랍니다.

2003. 7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재수

目 次

■ 激勵辭

- 한의학의 대중화에 발맞춰 :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 재 규
이제 한의학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 동 석

■ 發刊辭

- 의료기공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 재 수

■ 論文

- 醫療氣功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장성진·안훈모·박은정 1
- 消化障得시 나타나는 腹痛, 痞症에 있어서 四關穴 刺針후 外氣療法시행의 효과에 대한 研究.
박정은·최형일·이기남 31
- 환病 患者의 수지침 發功후 메리디안을 이용한 심장CMP의 數值變化에 대한 임상研究
서윤희·박승정·이현경 45
- 項强환자에게 氣功外氣療法을 응용한 경우의 ABR-2000측정 결과로 분석한 임상적 유효성
정은영·나삼식·이기남 61
- ABR-2000상의 변화를 통해 본 궁도요법의 효과연구
이제영·장종성 77
- 기마자세에 관한 고찰
신성원·이재홍·이은미 98
- 搔痒과 紅斑에 대한 氣功治療 증례보고
배항·박령준 127

[부록]

■ 기공요법 임상 사례집	150
■ 대한의료기공학회 의료기공학 개괄	190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則 全文	215
■ 대한의료기공학회 논문 규정	219
■ 대한의료기공학회 명단 및 주소록	231
■ 대한의료기공학회 기구조직 및 임원	238